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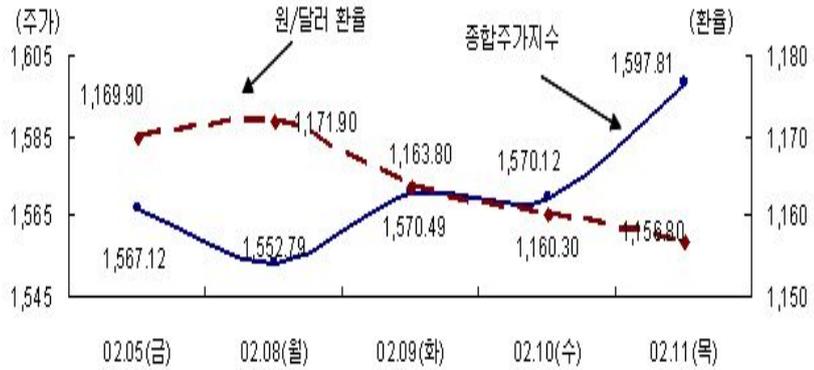
10-06(통권 386호)  
2010.02.11



■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 나진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5~2.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3669-4405, csk0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 나진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다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볼 때, 나선시를 개발함으로써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화폐개혁이후,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나선시 개발과 경제제건을 통해 후계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나선 지역 개발 추이와 한계) 1991년부터 북한은 나진·선봉 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획기적인 개혁과 개방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안보 불안 요인과 더불어 외국인 출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 조치 등으로 개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 향후 나선특별시는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동북3성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선시는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지리적인 요충지로서 항만을 끼고 있어 주변국들로의 진출과 물자 유통이 용이하며, 동북3성의 배후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연계된 산업 개발 및 안정적인 물동량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9년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선도구'를 지정하면서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을 기존의 다롄항 대신에 나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대륙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해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까지 물류망을 연계하는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선특별시가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되면 향후 '동북3성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잇는 새로운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진항의 개발로 인한 북한 경제의 생산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2020년에 약 4억 3,000만 달러(2008년 북한 GDP대비 약 1.6%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물동량이 유입될 경우 나진항 개발에 따르는 생산증가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나선특별시 개발은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북방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 요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북한 인프라와 물류망 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계하여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 및 철도와 연계된 중장기적인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나진항 개발에 따른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몽골 등지의 자원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원공동개발 사업 추진과 국내반입을 위한 물류운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기존의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북한 내수시장 진출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일방적인 대중의존도 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 <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월 4일, 북한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는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li> <li>- <b>경제적 배경:</b> 나선시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대외무역의 확대와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공급물자를 확보하기 위함</li> <li>- <b>정치적 배경:</b> 유순적 성격이 깊은 나선시를 개발함과 동시에 경제의 재건을 통해 후계자의 치적을 쌓고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고자 함</li> </ul>

나선특별시 개발전망	
북한의 나선시 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한 개발 전략 추진</li> <li>- 중국 자본과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북중경협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투자 여건을 마련</li> </ul>
나선시의 개발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항만을 통해 주변국으로의 진출과 물자 유통 용이</li> <li>- 기존 항구시설 이용 및 동북3성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단지 조성과 안정적인 물류수요 확보</li> <li>-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과 기존의 도로, 철도망의 연계를 통한 물류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진항 개발과 연계하여 창지투 선도구와 훈춘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물류거점도시 건설 및 성장동력 마련</li> <li>- 동해로의 출해항로를 개발하여 동북지역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물류주도권의 확보</li> </ul>

시사점과 대응과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북방지역으로의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요인</li> <li>- 북중경협 강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상대적 약화 및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li> </ul>
대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북한 인프라와 물류망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 추진</li> <li>-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나진항-부산항의 연계 및 도로-철도망이 연결된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 추진</li> <li>- 나진항 개발에 따른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몽골 등지의 자원 시장활성화에 대비한 자원개발 참여와 반입운송체계 마련</li> <li>- 기존의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개성공단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 모색 등을 통한 북한 경제의 대중의존도 최소화</li> </ul>

## 1.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 북한은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전격 발표함

- 나진시와 선봉군은 경제특구로 통합,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이번에 ‘특별시’로 새롭게 지정
-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2001년 나진과 선봉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선직할시로 승격
- 2010년 새해 들어 북한 당국은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위원회의의 정령을 공포함
- 특별시는 중앙당국의 관할아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할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기능을 갖춘 도시로 추정됨
- 이는 과거 실패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재개발을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공식화한 것으로 판단됨<sup>1)</sup>



출처 : 세계일보

1) 평양시는 한국전쟁 당시에만 특별시였으며, 이후 직할시가 되었다. 따라서 나선시의 특별시 지정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며, 그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2009년 까지 북한의 행정구역은 2직할시(평양, 나선) 9도 25시 33구역 147군 2구 2지구 147읍 3230리 1137동 267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2008 북한 이해』, 『2009 북한 개요』, 『매일경제』 2010. 1. 5., 『Daily NK』 1. 6.,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http://www.nis.go.kr): 검색일 2010년 1월 12일) 자료 참고.

○ 이번 나선특별시 지정은 경제적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정치적으로는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배경** : 나선시에 대한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대외무역의 확대와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공급물자를 확보하기 위함
  -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시를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운영하고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 통제력을 회복한 북한은 나선특별시 개발과 대외교역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염두에 둔 경제 재건축의 일환으로 나선특별시 개발을 통해 외자 유치와 북중경협을 확대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과 대북제재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
- **정치적 배경** : 유훈적 성격이 깊은 나선시 개발을 재추진함으로써 후계자의 치적을 쌓고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
  -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김일성 주석의 생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94년 사망 직전까지 사업보고를 받는 등 애착을 가졌던 사업임
  - 실패했던 나진·선봉 특구 개발 재개를 통해 3대 세습의 명분을 갖추고, 지역경제재건을 통해 김정일의 치적을 쌓고자 하는 의도
  -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두만강유역개발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 가능

## 2. 나선 지역 개발 추이와 한계

○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선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은 1991년에 나진과 선봉 두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
  -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진행하는 중 1991년 12월에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 나진·선봉시를 동북아의 화물중계지, 수출 가공기지, 관광 및 금융 기능을 가진 국제도시로 개발 구상
  
- 나진·선봉시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혁과 투자 감행
  -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자 1995년에 3단계 국토총건설계획을 수정하여 2단계로 수정하고, 나진 선봉시를 직할시로 승격
  -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항로, 도로개발 등 나진-선봉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
  - 1997년에는 환율현실화조치 및 외화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지대내의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 시행
  
- 그러나 다각적인 북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특구개발은 실패로 돌아감
  - 외국인 출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인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쇄 등 이 실패요인으로 지적<sup>2)</sup>
  - 또한 북한의 핵개발 및 안보정세 불안으로 말미암은 투자수요의 감소 또한 원인으로 지적

2) 조명철,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나산시 개발 현황 >

시기	내용
1991년 12월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3년 3월	- ‘나진·선봉지대 국토총건설계획’ 수립 · 1단계(1993년~1995년) :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공단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 2단계(1995년~2000년) : 국제화물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수출주도형 제조업 투자 유치 · 3단계(2001년~2010년) :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화
1993년 9월	- 나진·선봉 직할시로 개편
1995년	- 외자실적 부진으로 국토총건설계획 수정 · 당면단계(1993년~2000년) :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건설 · 전망단계(2001년~2010년) :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건설 - 법적·제도적 투자환경 개선 (세관규정,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등) - 북한 내부자원을 동원, 자력으로 운송체계 보완 및 인프라 정비 ·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항로 및 원정~권하(중국) 간의 통로개설 · 원정~나진 간 도로포장, 원정~선봉 간 도로 신설
1996년 9월	- 나진·선봉 투자 포럼 개최 (26개국 110개 기업 540명 참석) · 49건 3억 5천만 달러 투자 계약, 22건 3,400만 달러 실행
1997년 6월	- 투자실적 부진으로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강화 · ‘외화바꾼돈표’유통폐지와 환율현실화, 변동환율제 실시 · 지대내 개인자영업 허용 및 원정리 국제자유시장 개설 ·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1998년 9월	- UNDP와 UNIDO의 지원하에 나진기업학교, 나진기업정보센터 설립 - 헌법 개정 이후, 지대 통제 강화 정책 실시 · ‘자유’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호칭 ·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 폐지, 군부와 당국 개입 확대 · 원정리 국제자유시장 출입통제 강화 · 남한기업의 지대방문 중단 (이후 나산시 개발은 소강상태가 되었음)
2001년 5월	- 나선직할시로 행정구역 통합
2005년 7월	- 북중, 나진항 개발 합의 (나진~원정 간 도로건설 MOU 체결) - 북중 나선 국제물류합영회사 설립
2008년 3~4월	- 나진~하산(러시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보수 협의
2009년 11월	- 중국,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 획득, 1호 정박지 보수 완료
2010년 1월 4일	- 나선특별시로 승격

자료 : 이찬우, ‘나진·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오승렬, ‘북한 나진 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1997., 김경석, ‘나진·선봉 무역지대 개발과 인프라 확충’ 2002, 조명철,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2007., 허소영, ‘북한 해양수산 어제와 오늘’ 2009.참고

### 3.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

○ 북한은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동북3성과 연계하여 나선특별시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개발 전략** :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하여 중국의 자본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여 나선시를 대외 무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려는 전략
  - 자력으로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실패했던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재개
  - 특히 중국정부의 동북3성과 두만강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에 따른 나선시 주변의 배후산업지대 발전과 각종 인프라 확충
  - 특히, 중국 편에서 동해를 통한 연해주와 미주·일본 노선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나진항 개발은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됨<sup>3)</sup>

#### < 동북 3성에서 다렌 및 나진항 사이의 육로 비교 >

단위: km

구분	다렌(중국)	나진(북한)
랴오닝성(센양)	355	525
지린성(창춘)	1,033	735
헤이룽장성(하얼빈)	1,659	506

자료 : www.mapcrow.info(2010. 1. 28)

- **나진항의 개발 가치** : 나진항은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주변국들로의 진출과 물류의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 지역이 통제되어 있는 가운데 남한으로만 물자 유통이 가능한 상태이나, 나선시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 일본 등지로 진출이 용이

3) 중국은 동북지역에 인접한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구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적 관계, 러시아 관료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높은 통관 비용 등으로 인해 러시아보다는 북한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개성지역의 경우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나선시의 경우 기존의 항구 시설의 이용과 지대내의 북한 공장들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
- 최근 나선시에 최초의 남북합작기업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농수산 가공업과 해운, 물류사업 등을 결합하여 동북3성과 남한, 러시아 및 중국 남부까지 연계된 글로벌 유통사업 추진 중
-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공동 사업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동북3성 개발로 인해 안정적인 물동량의 확보 가능
- 다롄 및 단둥 지역의 항구는 이미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의 상당부분은 나진항으로 유입될 가능성 높음<sup>4)</sup>
- 최근 중국은 나진항에 인접한 청진항 개발에도 관심을 보임으로써 나진항-선봉항-청진항과 TSR과 기존의 도로 등과의 연계 발전으로 인한 물류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물류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려는 전략 추진

- 동북지역과 나진항 개발 현황 : 중국은 동북 3성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진항 개발권을 확보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 중국은 지난 해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1호 부두 개발 및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그 대가로 나진~훈춘 간 도로를 신설해 주기로 합의
  - 2008년 9월 지린~엔지 고속도로 개통으로 창춘-지린-투먼 고속도로의 전구간이 개통되었으며, 훈춘에는 2016년까지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동북아변경무역센터 건설 예정<sup>5)</sup>
  - 지난 12월 훈춘시와 북한 나진시는 권하(圈河)-원정 간 국경대교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0년 6월 완료 예정<sup>6)</sup>

4)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2009. 겨울호 pp. 62-63.

5) 원동욱,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남북한, 중국의 공조방안” 2009년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 협력 세미나 발표 논문 참고.

6) 길이 535m인 이 다리는 북한의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대북 진출의 요긴한 통로임에도 세워진 지 75년 된 낡은 다리여서 양측 간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훈춘시는 오는 3월 이 다리 보수에 착수,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0. 1. 21.

- 헤이룽장성 둥닝 현에서 수이펀허를 거쳐 지린성 훈춘에 이르는 ‘황금통로’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고, 2014년까지 철도로 이어질 예정<sup>7)</sup>
-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이미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보수에 합의하였고 2010년 10월 완공 예정임<sup>8)</sup>

- **동북3성 개발 전략** : 동북3성과 나진항의 개발을 연계하여 동북지역의 해양 물류망을 확보하고, 동북아의 경제 주도권을 선도하려는 전략

- 2009년 11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함께 동북진흥 프로젝트의 핵심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개발개방선도구’의 기획안이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공식 발표<sup>9)</sup>

-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연계하여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새로운 해양운송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옴<sup>10)</sup>

-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선진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출처 : 연합뉴스

7) 이들 세 개의 통상구를 잇는 철도가 개통되면 투먼과 훈춘, 둥닝, 수이펀허 등 주요 통상구들이 북한과 연결될 예정이며, 나진항은 이들 통상구들의 물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9. 11. 17.

8) 러시아도 나진항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를 앞두고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진항과 러시아의 인프라 협력이 이뤄지면 TSR(Trans Siberian Railroad,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화물 연계가 가능하며, 나진항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크다.

9)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 3만<sup>2</sup>를 대단위 산업 및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낙후된 동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10) 동북지역은 해양진출로가 없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진항 이용이 가능해지면 내륙운송보다 물류비가 저렴한 동해항로를 거쳐 중국 동부 연해지역으로의 새로운 운송망을 갖게 된다.

- 중국은 향후 ‘중몽대통로’ 건설을 통해 동북지역 6개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나진항을 그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전략<sup>11)</sup>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의 개요 >

구분	주요내용
대상지역	- 창춘시, 지린성의 일부, 연변조선족 자치주 등 73,000km <sup>2</sup>
발전목표	- 1단계(~2010) : 기반 조성 작업, GDP 4,890억 위엔(1인당 4.4만 위엔), 도시화율 60% - 2단계(~2020) :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인프라 건설, 중몽대통로 건설, GDP 7,200억 위엔(1인당 6만 위엔) - 3단계(~2015) : 창지투 국제산업협력단지 조성, 몽고-일본을 잇는 국제 운송루트건설, GDP 1.2조 위엔(1인당 7.8만 위엔) - 4단계(~2020) : 동북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GDP 1.9조 위엔 (1인당 10.8만 위엔) 도시화율 70%

자료 :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p. 61., “창지투개발구(長吉圖開發區) 비전 2020”, 지린성 제 11기 인대상무위 제 17차 회의 『창지투개발계획 실시방안』

- **경제적 효과 추정** : 2020년 기준으로 나진항이 유치 가능한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약 4억 3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
  - 나진항 개발시 동북 3성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물동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63만 TEU로 추정<sup>12)</sup>
  - 나선특별시 경제특구 재개발시 기존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을 기초로 추정하면 2020년에 약 137만 TEU의 해상 물동량 발생<sup>13)</sup>
  - 나진항의 개발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면 2020년에 연간 400만 TEU의 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이는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sup>14)</sup>

11) ‘중몽대통로’가 건설되면 몽골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되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대동맥이 완성된다. 이미 2008년 훈춘(중국)-자르비노(러시아)-속초(한국)-니카다(일본)을 연결하는 항로가 시범 운행되었다. 「길림신문」 2009. 11. 24.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2007년까지의 동북 3성 물동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초로 2020년 까지 발생하게 될 각 성별 해상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물동량을 기초로 나진항이 유치 가능한 동북3성의 물동량을 재계산하였다.  
 13) 황진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 관계 진전방안” 『북한해양수산저널』 2009. 창간호. p. 290.  
 14) 국토해양부 항만건설정책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항만산업은 환적컨테이너 1TEU 당 \$108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초로 나진항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를 단순 추산하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logistics.mltm.go.kr/USR/WPGE0201/m\\_449/DTL.jsp](http://logistics.mltm.go.kr/USR/WPGE0201/m_449/DTL.jsp), 참조.

- 향후 러시아와 한국의 물동량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나진항 개발 효과는 4억 3,0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sup>15)</sup>
- 또한 주변의 선봉항, 청진항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용이하므로, 나진항 개발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나진항 유치 가능한 동북 3성 수출입 물동량 추정 >

단위 : 천 TEU

연도	저체물동량				나진항 유치가능 물동량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합계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합계
2010	3,379	585	956	4,920	311	202	527	1,040
2011	3,726	645	1,054	5,425	340	220	577	1,137
2012	4,076	705	1,153	5,934	374	243	635	1,252
2013	4,476	777	1,270	6,523	412	267	698	1,376
2014	4,931	853	1,396	7,180	452	293	767	1,511
2015	5,416	938	1,532	7,887	496	322	841	1,659
2016	5,945	1,029	1,682	8,656	545	353	923	1,821
2017	6,522	1,130	1,846	9,497	597	387	1,012	1,996
2018	7,151	1,238	2,024	10,413	654	424	1,109	2,188
2019	7,838	1,357	2,218	11,413	717	464	1,215	2,396
<b>2020</b>	<b>8,584</b>	<b>1,486</b>	<b>2,429</b>	<b>12,499</b>	<b>785</b>	<b>509</b>	<b>1,331</b>	<b>2,625</b>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2008. p. 324. 내용을 일부 수정.

주 : 나진항의 시설과 운영체계 및 나진항~동북 3성 간 연계 운송망이 정비되었을 경우의 추정치임.

○ 나선특별시 개발이 나진항을 중심으로 재개됨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및 북중경협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 **북한 경제 개방 가속화** : 북한은 올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나선시 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 및 개방조치 시행이 예상됨
- 화폐개혁 이후, 심각한 공급난에 처한 북한은 대외개방을 통한 각종 물자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개방이 필수적임
- 특히, 과거 인프라 구축 미비와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외자유치에 실패한 경험을 기초로 적극적인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경제 제도 개혁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15) 본 수치는 2020년 북한 나진항의 개발시에 발생하게 될 물동량과 동북 3성에서 유치 가능한 물동량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나진항 개발 및 연계 운송망 건설 성공 여부와 나진항의 확대, 청진항과의 연계, 남북 관계 개선 및 북러 노선 확충 등의 변수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김위원장의 현지도에 이어서, 신년초 나선시를 유일한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2010년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 배려를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은 외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및 달러와 위엔화의 외환 유통 자율화 등의 경제 개방 정책 시행 예상<sup>16)</sup>
  - 1차적으로는 동북3성의 개발과 나진항 이용에 따른 개방이 예상되며, 향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진척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
- **북중경협 가속화** : 중국의 나선시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양국 경협은 더욱 가속화되고, 북한 경제는 이전보다 활성화될 전망
- 중국이 국제무역도시로 개발 중인 ‘창지투선도구’ 및 훈춘시와 나진항과의 연계개발로 인해 나선특별시 개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동북3성과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나선시와 훈춘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가 건설될 전망이며, 북중 양국 간의 경협은 압록강대교와 나진항의 두 축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나진항에 대한 장기 사용권 확보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의 장기 계약으로 인해 당분간 북중경협 활성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sup>17)</sup>
  - 대북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은 북중경협의 강화를 통해 부족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재건 및 경제 활성화 전망

16) 「매일경제」 2010. 1. 5.

17) 중국은 2005년 민간기업을 통해 북한 원정에서 나진항까지 연결되는 도로 67km를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나진항 3, 4호 부두의 50년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양국 간 마찰로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포화상태의 극동 항만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에 뛰어듬에 따라 2008년 4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철도성 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나진항 3, 4호에 대한 이권은 러시아에게 돌아갔다. 2009년 창지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창춘-지린-두만강유역을 성장축으로 하는 동해로의 출해통로 확보 및 중몽 대통로 개설이 구체화되었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북한은 중국의 창리(創立) 그룹에게 나진-훈춘 간 도로 건설을 대가로 1호 부두 개발 및 운영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원동욱, “남북 관계 진전방안” 참고.

#### 4. 시사점과 대응

○ (시사점) 나선특별시 개발은 북방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요인인 동시에 북한 경제 대중의존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 (기회요인) 나선특별시 개발은 남한 기업들에게 북방으로의 진출 및 新남북 경협의 기회를 제공

-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의 동북3성 연계된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인프라와 물류망 개발 수요의 발생
-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 3성과, 몽고,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시장 거래 촉진
- 최근 나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기업이 설립됨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기회와 모델 제공<sup>18)</sup>

- (위협요인)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북중경협의 가속화로 인해 북한 대중의 의존도 확대와 기존의 남북경협의 약화 우려

- 북중경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 현상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우려됨
- 나선특별시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약조건이 많은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 (대응과제)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북방 진출의 기회로 삼는 한편,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시급

- 첫째,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인프라와 동북아 물류 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함

18) 2009년 12월 18일, 농수산물 통조림 가공 및 무역을 업체인 (주)매리는 북한 개성총회사와 남북합작 농수산물 가공 법인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에 대한 기업 창설 승인을 받았다. (주)매리는 농수산물가공 및 항만개발, 물류 센터와 선박운영 등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연계하여 향후 나진항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 등지의 교역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0. 1. 19,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글로벌 협력의 남북경협”, 『남북물류포럼 조찬 간담회』 2009. 2. 10.

- 두만강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중국과 러시아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과 항만 개발과 무역지대 건설 등 공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동 참여 모색
  -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향후 대규모의 물류가 나진항에 유입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해운, 물류, 유통 등의 신규 사업에의 한국 기업의 참여 시급
  - 특히 북한 또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지리적 인 이점을 활용한 주변국들로의 유통 사업 연계 가능
- 둘째, 나진항 개발에 따른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을 계획해야 함**
- 나진항과 부산항의 물류 연계 시스템 개발 및 북방 지역 물류 도입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 등과 연결되는 통합 국제물류시스템 개발
- 셋째, 나진항 개발사업과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북방 지하자원 확보 및 국내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나진항 인근의 단천지역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나진항을 통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국내 반입 추진
  - 동북 3성과 몽골, 러시아의 풍부한 원유, 목재, 철강, 석탄, 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에 대한 공동개발과 나진항을 통한 국내도입 대책 마련
- 넷째, 개성공단의 활성화 및 북한 내수시장 진출 등으로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심화를 최소화해야 함**
-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확대
  - 개성공단 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 남북교역의 확대, 개성공단 2차 산업 추진 등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

최 성 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3669-4405)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5	-6.4	-0.7	2.2	5.7	2.7
유로 지역	0.7	0.7	-0.3	-0.4	-1.9	-3.9	-2.5	-0.1	0.4	-	1.0
일본	-0.7	5.6	-8.1	-4.0	-10.2	-5.3	-11.9	2.7	1.3	-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1	7.9	8.9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5일	2월1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63	3.69	0.06p
	엔/달러	90.76	96.65	92.93	89.22	89.98	0.76¥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663	1.3734	0.0071\$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121	10,038	-83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414	9,964	-45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27	4.18	-0.09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61.8	1,156.8	-5.0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602.4	1,597.8	-4.6p

주: 2월 11일 해외지표는 전일(2월 1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5일	2월11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2.96	74.45	1.49\$
	Dubai	36.45	71.85	78.06	74.78	71.39	-3.39\$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36.67	266.23	29.5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